

중소건설업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유망시장 조사 보고서(Ⅲ)

2006. 7.

해외건설활성화 TFT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중소건설업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유망시장 조사 보고서(Ⅲ)

2006. 7.

해외건설활성화 TFT

<차례>

I. 알제리	1
1. 기본 사항	1
2. 경제 현황	2
3.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정책 및 시장 동향	5
4. 우리나라와의 관계	12
II. 가나	15
1. 기본 사항	15
2. 경제 현황	17
3. 우리나라와의 관계	18
III. 아제르바이잔	21
1. 기본 사항	21
2. 경제 현황	23
3. 건설 및 부동산 시장 동향	25
4. 우리나라와의 관계	29

<표 차례>

<표 I-1> 알제리의 일반 현황	2
<표 I-2> 알제리의 주요 국내 경제 지표	4
<표 I-3> 알제리의 대외거래 지표	5
<표 I-4> 대 알제리 수출입 추이	13
<표 I-5> 대 알제리 시공 현황	13
<표 II-1> 가나의 일반 현황	16
<표 II-2> 가나의 주요 경제 지표	18
<표 II-3> 대 가나 무역 현황	19
<표 II-4> 한국 건설업체 진출 현황	19
<표 III-1> 아제르바이잔의 일반 현황	22
<표 III-2> 아제르바이잔의 주요 국내 경제 지표	24
<표 III-3> 아제르바이잔의 대외거래 지표	25
<표 III-4> 대 아제르바이잔 수출입 추이	29

제1장

알제리

1. 기본 사항

○ 국가 개요

- 알제리(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Algeria)는 북부 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위치함.
 - 면적은 2,382km²로 한반도의 10배 정도로 기후는 북부는 지중해성 기후이며, 남부는 대륙성 및 사막 기후를 나타냄.
- 인구는 3,400만 명(2005년 기준)으로 아랍인이 81%를 차지하며, 베르베르인이 19%를 차지함.
 - 아랍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프랑스의 식민지였으므로 상류층은 여전히 프랑스어를 사용함.
- 주요 종교로는 회교 중 특히 수니파가 99%를 차지하며, 일부 가톨릭교가 있음.

○ 정치 현황

- 2005년 1월 테러중식 선언 이후 테러가 감소하고 국내 정치가 안정됨.
 - 알제리 정부는 1999년 9월 및 2005년 9월 테러행위 가담자 사면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국민화합과 과거 청산 도모함.
- 부테플리카 대통령(1999년 4월 당선, 2004년 4월 재선)은 강력한 개혁 정책을 추진함.
 - 재선 이후 5대 국정 목표(민족화합, 평화정착, 국가안정, 안보확립, 경제개발)를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함.

<표 I -1> 알제리의 일반 현황

일반	·위치: 북부 아프리카, 지중해 연안 ·면적: 2,382,000 km ² (한반도의 10배) ·기후: 지중해성(북부), 대륙성 및 사막 (남부) ·인구: 3,400만명(2005년) ·수도: Algiers(300만명) ·민족: 아랍인 (81%), 베르베르인 (19%) ·언어: 아랍어 (공용어), 프랑스어, 베르베르어 ·종교: 수니파 회교 (99%), 가톨릭
정치	·독립일: 1962. 7. 5 (프랑스) ·정부형태: 인민공화제 (대통령중심제) ·국가원수: Abdelaziz Bouteflika 대통령 ·국제기구가입: UN, IMF, ILO, OPEC, WHO 등
경제	·GDP: 914억 달러 (2005년) ·1인당 GDP: 2,697달러 (2005년) ·화폐단위: Algerian Dinar (AD) ·산업구조: 농업 10.2%, 공업 55.1%, 서비스업 34.7% (2003년) ·주요 수출품: 원유가스, 정유제품 ·주요 수입품: 자본재, 식량, 석유개발관련설비, 반제품 ·주요부존자원: 석유, 천연가스 ·경제적 강점: 석유가스 자원 풍부 ·경제적 약점: 낮은 식량자급도, 대외채무 과다, 정정 불안

2. 경제 현황

(1) 국내 경제 동향

- 2005년도 GDP는 914억 달러이며 1인당 GDP는 2,697달러를 기록함.
 - 원유가스 생산의 증가, 국제 유가 강세, 신규 유전 발굴 및 관련 산업투자 증가에 기인하여 2003년 이후 평균 6%대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6.2%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알제리의 화폐단위는 알제리 디나르(Algerian Dinar: AD)로 환율은 2006년 1월 현재 미화 1달러 당 72 알제리 디나르임.

- 알제리의 노동력의 35%는 실업 또는 불완전 고용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실업은 주로 청년층(실업자의 73%는 30세 이하), 도시 거주자 및 여성에게 집중됨.
- 그러나 지난 4년간 알제리 정부의 공공고용 확대 조치 및 높은 경제성장으로 실업률은 2001년 27.3%에서 2004년 9월에는 17.7%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알제리 정부는 석유 부문 판매수입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확충과 공공 주택건설 등 공공 프로젝트 사업에 투입하는 등 사회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가스 부문의 재정수입 증가로 재정수지는 지난 5년간 흑자를 유지함.
 - 재정수지 흑자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며, 2006년 재정흑자 규모는 GDP의 11.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 물가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90년대 중반 정부의 보조금 감축 조치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0%대를 육박하였으나, 이후 정부의 강력한 긴축 통화정책 시행으로 1999년에는 2.1%로 크게 하락함.
 - 2002년 이후 이자율의 급락과 해외자산의 급증으로 총통화증가율이 4.9%를 나타내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거나 4%대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됨.
- 2003년 사회노조(UGTA)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국영 기업의 민영화 계획이 중단되었으나, 향후 환율 통제 및 무역장벽의 점진적인 제거, 가격보조 철폐, 조세제도의 개혁, 국영기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임.
 - 최근 민영화 추진 실적을 보면, 2000년 5월 독일 세제 생산 기업 Henkel의 ENAD에 대한 경영권 인수, 2001년 10월 인도 Ispat(LM Mittal의 전신)에 국영제철기업 Sider 매각, 2005년 4월 2개 비료공사의 스페인 Villa Mir 그룹에 대한 매각 등에 그침.

- IMF는 2005년 알제리 정부가 관세 시스템 개혁 및 무역체제의 현대화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사유화 등 다른 구조조정 개혁 분야에는 이행정도가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함.

<표 I-2> 알제리의 주요 국내 경제 지표

항목	단위	2001	2002	2003	2004	2005e	2006f
GDP	억 달러	549	559	662	760	914	-
1인당 GDP	달러	1,790	1,820	2,130	2,630	2,697	-
경제성장률	%	2.6	4.1	6.8	5.9	6.4	6.2
재정수지/GDP	%	4.3	1.2	4.9	5.3	13.6	11.9
소비자물가상승률	%	3.5	2.3	3.5	4.6	4.7	3.6

자료: EIU

(2) 대외 거래 동향

- 국제 유가 상승 및 유럽 국가들의 수입 수요 증대로 인한 알제리 원유가스 수출의 점진적인 증대로 경상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음.
- 알제리의 경상수지는 국제유가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 따라서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 호조로 2003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11.8%를 기록하였으며, 2005년에는 21.7%를 기록하였음.
- 외환 보유액 지속적으로 증가함.
- IMF에 따르면 알제리의 외환보유액은 2002년 232억 달러(수입의 19.4개월분), 2003년 331억 달러(수입의 2년분), 2004년 432억 달러, 2005년 말 563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표 I -3> 알제리의 대외거래 지표

항목	단위	2001	2002	2003	2004	2005e
환률(달러당, 평균)	AD	77.22	79.68	77.39	72.06	73.28
경상수지	백만 달러	6,999	4,600	8,554	12,290	19,826
상품수지	"	9,600	6,700	11,100	14,300	23,500
수출	"	19,100	18,700	24,500	32,200	45,800
수입	"	9,500	12,000	13,400	18,000	22,300
서비스수지	"	-1,500	-1,200	-1,400	-2,000	-2,400
자본수지	"	...	1,174	969	1,177	3,480
외환보유액	"	18,081	23,238	33,125	43,246	56,303
총외채잔액	"	22,586	22,876	23,386	21,987	16,987
단기외채	"	199	108	146	-	-
총외채잔액/GDP	%	42.5	42.6	36.2	25.9	16.5
DSR	%	20.1	19.0	15.2	11.3	9.8

자료: EIU

3.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정책 및 시장 동향¹⁾

- 알제리의 건설교통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은 교통부, 국토개발환경부, 주택도시부 및 공공사업부의 4개 기관에서 분리되어 이루어짐.
- 교통부는 교통정책 및 철도개발을 담당하며, 국토개발환경부는 국토정비, 환경정책 및 균형개발계획의 수립, 그리고 기타 환경사업을 맡아함.
- 주택도시부는 주택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맡아하며, 공공사업부는 인프라 건설, 유지 및 보수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도로 및 고속도로 사업을 맡아함.

1)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정책은 2006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의 알제리/아제르바이잔 순방 후속조치로 알제리/아제르바이잔과의 건설교통분야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2006.6.18~6.24일까지 관련기관, 협회 및 13개 건설 관련 업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협력단의 방문결과를 통해 입수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1) 교통시설 관련

- 교통부에서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100억 달러(7,000억 AD) 규모의 「교통 인프라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인프라 개발에 외국 및 알제리 민간 부문의 참여 유도 정책을 시행하고자 함.

- 이를 위해 1차적으로 법체계를 정비,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을 규정함.

- ① 교통시설을 국가가 운영하지 않음.
- ② 규제완화와 독점해소
- ③ 민간투자의 장려
- ④ 국가의 역할 명확화

- 여기서 국가의 역할은 크게 3가지로 규정함.

- ① 리스크 감소 노력: 이를 위해 i)교통정책의 명확화, ii)경쟁적, 수익성 있는 시장 형성을 위한 법규의 제정, iii) 투자자 위험 판단을 위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함.
- ② 공공 서비스의 분리를 통해 투명한 공공서비스 제공
- ③ 인프라에 대한 투자

- 알제리의 교통 인프라 개발 5개년 계획을 위한 구체적인 부문별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① 철도 부문

- 총 3,500km 철도 건설 예정, 철도의 민영화는 고려하지 않으나, 국가와 민간, 그리고 외국과의 partnership을 적극 추진하고자 함.
- 기존선이 북쪽에 밀집해 있어(남쪽은 사막 지역) 이를 다양화하고자 함. 기존 철도의 복선화 및 신설 검토.
- 철도 5개년 계획은 이미 예산이 확정된 상태로 향후 3개의 축을 중심으로 철도를 2009년까지 3단계로 개발할 예정임(북부 해안 안나바(Anaba) ~ 오란(Oran) 430km, 남북선 및 중부선).
- 현재 알제 수도권 철도 시설(차량 구매 포함) 중 주요 부분은 스위스와 스페인 회사에 발주된 상태임.

② 도로 교통 부문

- 다양한 교통수단 간에 연계 교통 추진. 구릉지의 경우 케이블카 건설, 평지 교통수단 및 버스 터미널 건설 등을 통해 지역에 맞는 교통수단 간에 연계가 가능하도록 함.
- 수도 알제의 경우 교통 수요가 많아 교외 철도 건설을 추진하고자 함(알제 주요 축의 교통시설 정비를 통해 현재 러시아워 시간대 7만명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을 20만명 이동이 가능한 인프라 건설).

③ 공항, 전철, 지하철

- 2008년까지 정비 계획 추진
- 항공망 확장을 위해 남부에 새로운 관제 센터 건설과 레이더 시스템 도입 예정
- 새로운 케이블카 라인 건설 추진

④ 항만

- 2004년 수입과 수출 포함 총 1억 1,800만 달러 운용, 특히 수출 중 97%가 석유
- 현재 다수의 항만 개보수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며, 선적 하역 설비, 선적 레이더 관제 및 통제 시스템 그리고 해운 항만 안전 시스템 등 건립계획 수립
- 이들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민간부문과의 partnership 도입 예정.

(2) 국토개발 관련

- 국토의 변환과 불균형적인 발전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개발환경부에서는 2025년까지의 개발계획으로 「국토개발계획」(National Scheme)을 준비 중임. 여기에는 주요 사항으로 3대 신도시 개발프로젝트가 포함됨.
- 이는 남한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면적에 대한 개발계획으로 5개년 계획으로 4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2009년까지 순수 정부투자사업만 600억 달러 투자 계획.

- 이의 시행을 위해 1차적으로 2001년 기본법령으로 「국토정비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향후 3년 안에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국토정비환경부서를 설립할 예정임.
 ; 국토정비관련법, 환경관련법, 신도시생성관련법, 연안도시관련법, 도시관련법 등 정비
- 나아가 국토개발환경부에서는 국토의 변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새로운 비전을 마련하고 3대 신도시를 개발하고자 함.
- 국토의 4%에 해당하는 북쪽 해안지대에 산업설비 및 인구의 65% 밀집함.
- 이에 따라 각종 사회문제 및 물리적/자연적 재해 발생 위험 상존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험이 있는 북쪽 지역의 인구와 산업설비(석유관련)의 재배치.
- 연안보호와 부가가치 증진을 위해 도시의 연안집중을 막기 위한 정책 실시

< 3대 신도시 프로젝트 >

- 취지
 - 연안의 지나친 건축을 막고 고원지대로 인구 재배치
 - 알제리의 지식 및 정보 사회화 추구
 - 지속가능한 발전 및 환경에 대한 고려
- 추진 방식
 - 알제리 정부가 선도, 필요한 재원을 기본적으로 알제리 정부가 조달
 - 전체적인 국토개발 구상 하에 도시개발 추진
 - 대도시 주변의 위성도시로 개발(대안도시 성격으로 알제의 지나친 확장 억제 목적)
- 사업 추진을 위한 조치 계획
 - 신도시 개발 관장을 위한 일명 ‘신도시개발청’과 같은 단일 시설 신설 계획.
 - 민간, 정부의 토지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해 토지수용과 관련된 법률 마련 및 coordination을 위한 기구 구상 중.

○ 부케줄 신도시

① 컨셉(concept)

-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대적인 신도시 추구
- 지속가능한 환경 추구, 농촌지역 개발과 고용창출 효과 기대

② 규모 : 총 면적 4,600ha, 이중 도시화 면적 2,500ha로 향후 인구 35만명 수용 예정

③ 입지 : 알제에서 동쪽 200km(2시간 이내), 동서와 남북의 교차로

④ 주요 기능 : 첨단도시, 고급형 물류 시스템, 쇼핑센터, 대학, 국제공항, 주택, 사회문화시설 등 고급 서비스 제공

⑤ 진행상황 : 중국 + 스페인에서 설계

○ 사디 압둘라

① 컨셉(concept)

- 연구기관과 과학을 위한 신도시, 통신, IT기술 추구
- 구릉지이므로 자연환경을 존중하는 컨셉 도입

② 규모 : 총면적 7,000ha에 도시화 면적 3,000ha, 향후 20만명 수용 예정

③ 입지 : 알제에서 남서쪽으로 30km

④ 신도시 개발 계획 년도 : 2007년~2020년

⑤ 진행상황 : 1994년 최초 계획, 2005년 1월 우리나라의 KOICA 지원 하에 마스터 플랜을 완성하였으나 현 알제리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관료주의, 각 부처별 별도 예산 배정 등으로 사업 추진 부진

○ 브이난 신도시

① 컨셉(concept) : 생태 신도시, 관광/레저 신도시

② 규모 : 총 2,175ha에 도시화 면적은 1,600ha, 향후 15만명 인구 수용 예정

③ 입지 : 알제에서 서쪽 28km 지역 (실제 방문 결과 빠른 속도로 달려 약 40분 내외 소요)

④ 주요 기능 : R&D, 레저와 스포츠, 특히 엘리트 스포츠 추구, 지중해 빌리지와 같이 높은 수준의 주거 서비스 제공

⑤ 주변 경관 : 배수에 산이 있고, 스키장 및 온천이 있고 골프장 개발 예정이라고 함.

- ⑥ 추진 계획 : 전체 지역을 행정구역, 도로 등을 기준으로 총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추진. 1단계는 총 760만평(2,175ha) 중 100만평을 우선 개발하고자 함.
- ⑦ 1단계 사업의 특징
 - 1단계 사업지 전체가 국유지로 토지가 상대적으로 저렴(협상 가능)
 - 알제리 정부가 인프라 구축 약속 → 향후 2년내 알제에서 브이낭 지역으로 진입하는 2개 도로 완공 예정
- ⑧ 한국업체 참여를 위한 MOU 체결
 - 토공을 비롯 주택전문 4개사(우림, 동일, 반도, 삼성C&C)외에 관심업체로 표기된 MOU체결(2006.6.20)
 - 쌍용, 대림, 삼부는 MOU에 불참, 향후 사업성 확인 후 참여 여부 검토

(3) 주택개발 관련

- 알제리의 경우 30년 전부터 인구 증가와 이농현상으로 심각한 주택난이 발생함. 따라서 ‘주택도시부’에서는 1999년부터 주택 관련 프로젝트를 시작함.
 - 50만 명 규모로 건설된 알제의 현재 인구가 3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음.
- 그러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수단(건설업체 및 설계업체 등을 의미하는 듯 함)이 없어 외국업체에 의존함.
 - 중국의 경우 처음에는 조그만 기업부터 시작해 현재 많은 기업이 대규모로 진출.
 - 중국을 비롯해 터키, 이집트, 이란, 레바논, 튀니지 등 현재 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많은 외국업체가 진입해 있는 상태임.
- 현재 알제리에는 도시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가 없는 실정임. 또한, 알제리에 지진이 있으므로 도시개발 및 항진 관련 전문가 교류 요망.
- 주택분야에 다수의 공사가 발주되고 있음.
 - 공사에 관한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입수 가능
 - 대사관을 통해 주택 건설 관련 지침서 제공 가능. 단, 불어로 되어 있음(아랍어와 불어 사용)
 - 그러나 민간의 경우에는 영어 웹사이트(website)가 있음.

- 한국 건설업체들이 고급주택에 관심이 있으면 토지 제공 의향 있음. 즉, 한국기업이 토지를 구입하여 사업이 가능하도록 조치.
- 알제리의 경우 토지는 국유지가 많으며, 사유지도 있음. 국유지와 사유지 간에 땅값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함.

(4) 공공사업 관련

- 공공사업부에서는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09년까지 1,388개, 약 150억 달러의 고속도로 공사를 발주 예정이라고 함
 - 고원지대 고속도로 1,300km 건설
 - 남북간 연결 고속도로 2,400km 건설
 - 동서고속도로 및 고원지대 고속도로간 연결도로 등
- 남북 횡단 도로는 나이지리아까지 연결. 동 도로를 따라 나이지리아~알제리~유럽을 연결하는 가스파이프라인(gas pipeline)을 건설할 예정임(약 70억 달러 상당).
- 2006년 내 400km 고속도로 공사(공기 40개월)를 발주할 예정임.
 - 이는 세계 225대 건설업체에 한해 초청 예정이라고 함.

(5) 외국업체 진출 현황

- 주로 미국, 중국, 유럽, 이집트 업체들이 진출해 있음.
 - 미국 업체들로는 Haliburton KBR(석유), Bechtel(석유, 전력), ABB Lummus Global & Iron Co.(석유), Parsons(석유), Contrack(토목) 등
 - 이탈리아 업체들로는 Snamprogetti(석유), Enelpower(전력), GEPCO(건축, 토목, 석유), ICOM Engineering Spa(건축, 석유), Todini(급수), Benti Group(건축, 토목), Saipem(유전개발), ENCO(주택, 고속도로), COGEFAL(건축, 토목), ASTALDI(건축, 토목) 등
 - 중국 업체들로는 China Elec. Power(전력), China State Const. Eng. Corp(건축), China Zhongyuan Eng. Corp(전력), Sinopec(유전개발), China Gio Engineering Corp(토목), CSCES(건축) 등

- 일본 업체들로는 JGC(공업용 석유), Itochu(산업설비)
 - 이집트 업체들로는 Arab Constructors(건축), ORASCOM Construction(주택, 고속도로)
 - 이외에 캐나다 업체로 SNC-Lavalin(전기, 토목)
- 외국업체 중 최대 실적업체는 스페인 업체 Dragados construcciones S.A.으로 알제리에서 20개 프로젝트, 14.2억 달러의 공사를 수행함. 그러나 최근 알제리내 가격 경쟁력 저하로 철수를 검토 중이라고 함.

4. 우리나라와의 관계

(1) 일반 현황

- 외교관계 수립: 1990년 1월 15일 수교(북한과는 1958년 9월 25일 수교했으나 1998.1 북한대사관 폐쇄)
- 공관현황
 - 우리나라: 상주(1990. 4 공관개설), 2005.9.11 정해웅 대사 신임장 제정
 - 알제리: 상주(1992.10 공관개설), 2005.10.17 Rabah Hadid대사 신임장 제정
- 주요 협정 체결: 경제기술과학협정(1997.4), 문화협정(1997.4), 투자보장협정(1990.10), 이중과세방지협정(01.11),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2003)
- 투자실적: (2005년 말 현재, 총투자 기준) 5건, 2억 2천만 달러(광업)
- 무역현황: 2004년 현재 수출은 약 7,500만 달러이며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섬유직물, 일반기계 등임. 수입은 전년에 비해 오히려 줄어 2004년 현재 약 700만 달러로 주로 농산물, 코코아 등이 수입됨.

<표 I-4> 대 알제리 수출입 추이

항목	2003	2004	2005	주요품목
수출(백만 달러)	225	355	340	자동차, 가전제품, 기계류
수입(백만 달러)	192	240	166	LPG, LNG, 원유, 가스

(2) 한국 건설업체 진출 현황

- 우리나라 업체 중 알제리에 최초로 진출한 업체는 대우건설로 1989년 4월부터 6천 800만 달러 규모의 알제 호텔 공사를 수행하였음.
- 현재 시공 중인 공사는 4개 업체, 7건으로 1억 4,300만 달러임(<표 I-5> 참조).

<표 I-5> 대 알제리 시공 현황

(단위 : 천 달러)

업체	발주처	공사명	규모	공기	공정률(%)
4개업체	4개 발주처	7건 공사	143,770	-	-
대우건설	Sahli	알제 호텔 건설공사	68,196	'89.4 ~ '93.10	준공(100)
	Daewoo Algeria Hotellerie Lisirs	알제 비즈니스 센터	65,700	'99.2 ~ '01.8	타절(7)
경남기업	국영석유회사	직업훈련원기본설계	4,145	'05.12 ~ '06.6	시공중(0)
		석유연수원기본설계	4,737	'05.12 ~ '06.6	시공중(0)
희림건축	EURL Park Group Construction	골든빌리지주상복합설계	992	'03.12 ~ '04.11	시공중(20)
공간건축	국영석유회사	직업훈련원설계용역(하청)	2,420	'06.1 ~ '06.7	시공중(0)
		석유연수원설계용역(하청)	2,695	'05.1 ~ '06.7	시공중(0)

자료: 해외건설협회

(3) 알제리 진출 시 고려사항

- 긍정적 측면

-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급속한 경제성장과 열악한 인프라 시설, 주택난 등으로 지속적인 건설 프로젝트 발주 물량 풍부
-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로 자체 자원 마련 가능. 나아가 석유 자원을 목표로 일본계 및 유럽계 금융기관의 공적자금과 다양한 외국기업의 민간투자로 자원 풍부
- 시장개방 정책에 따라 내외국업체에 대한 차별 최소화
- 양국 정부간 우호적인 분위기에 따른 정부의 정책적 및 외교적 지원 기대

- 부정적 측면

- 언어적 장벽 존재(불어를 주로 사용하며, 아랍어 사용)
- 현재 신도시, 건설 및 외국기업 관련 법 및 관련 제도의 정비 미비.
 - : 향후 개선을 약속했지만, 현지 관련자의 지적과 같이 각종 법령의 정비를 위해서는 적응기간(adaptation period) 필요. 더욱이 현재 정부가 바뀌는 기간이므로 적응기간 필요.
- 상부에서는 적극적이나 하부에서는 상부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아 적극적인 협조 분위기는 아님.
- 인허가 문제 : 경제개발 단계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나 건설 관련 부처가 4개로 나뉘어 있어 행정처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인허가가 매우 어려움.
- 높은 인건비: 현재 기술자의 경우 월 미화 700 ~ 1,500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함.
- 장비 및 자재에 대한 접근이 어려움.
- 도급공사의 경우 경쟁 치열: 중국, 터키 등 중저가 업체 진출 급증. 일례로 진출 외국업체로 최다 실적을 보유한 스페인 업체인 Dragados constructions의 경우 알제리 내 가격 경쟁력 저하로 철수 검토 중이라고 함.

제2장

가나

1. 기본 사항²⁾

○ 국가개요

- 위치 및 면적
 - 가나는 아프리카 서남 대서양 연안에 위치하며 면적은 23만 9,000km²로 한반도와 비슷한 크기임.
 - 기후는 열대성으로 남부는 고온 다습하며, 북부는 고온 건조함.
- 인구는 2,100만명(2004년 기준) 정도이며, 영어를 공용어로 하며 기타 부족어를 사용함.
 - 인종구성을 보면, Akan족의 비중이 가장 높아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Mole-Dagbani족(15%), Ewe족(13%)으로 구성됨.
- 종교는 기독교가 69%로 가장 많으며, 이외에 회교와 토속신앙이 각기 15.6%, 8.5%를 차지함.

○ 정치 현황

- 정치적으로는 지금까지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 극단적인 갈등은 없었음. 특히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원조 제공국들과 국제사회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받았음.
- 1981년 12월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로링스가 1992년 대통령 당선된 이후 정치적 안정과 경제개혁이 이루어짐.

2) 이하의 내용은 수출입은행의 국별 리포트, 해외지역정보 등의 자료를 요약한 것임.

-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신애국당(NPP)의 쿠프루가 여당인 국민민주회의(NDC)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아프리카에서는 드물게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짐.
- 야당이 된 국민민주주의가 과거 집권 시 행한 인권유린, 부정부패 등의 문제로 현 정권과 정치적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나, 쿠데타 등 극단적인 정정 불안 사태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음.
- 종족간의 마찰 등 다소의 문제가 있기는 하나 아프리카의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심각한 사회 불안요소는 적은 편이며, 당분간 사회 안정은 유지될 전망이다.

<표 II-1> 가나의 일반 현황

일반	·위치: 아프리카 서부, 대서양 연안 ·면적: 239,000km ² (한반도와 거의 동일) ·기후: 열대성(남부: 고온 다습, 북부: 고온 건조) ·인구: 2,100만명(2004년) ·수도: Accra(1,600만명) ·민족: Akan족(50%), Mole-Dagbani족(15%), Ewe족(13%) ·언어: 영어(공용어), 부족어 ·종교: 기독교(69%), 회교(15.6%), 토속신앙(8.5%)
정치	·독립일: 1967, 3. 6(영국) ·정부형태: 공화제(대통령중심제) ·국가원수: John Agyekum Kufuor 대통령 ·국제기구가입: UN, OAU, ILO, IAEA, IMF, WTO, AfDB, IBRD, 영연방 등
경제	·GDP: 84억 달러(2004) ·1인당 GDP: 402달러(2004) ·화폐단위: Cedi(C) ·산업구조: 서비스업 39.4%, 농림어업 35.2%, 제조업 9.3%(2001) ·주요 수출품: 코코아, 금, 목재 등 ·주요 수입품: 자본재, 중간재, 연료 등 ·주요부존자원: 금, 보크사이트, 다이아몬드, 목재, 코코아, 망간 ·경제개발계획: 1983년 이래 IMF의 지원 하에 경제회복계획 추진 중 ·경제적 강점: 광물자원 풍부 ·경제적 약점: 인프라 미비, 외채 과중, 정정 불안

2. 경제 현황

- 2004년을 기준으로 총 GDP는 84억 달러, 1인당 GDP는 402달러를 기록함.
 - 가나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비교적 안정된 정치 환경 등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경제적 발전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 평가됨.
 - 그러나 2001년 3월 IMF에 HIPC(고채무빈국)방식의 채무구제를 신청하는 등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산업구조는 1차 산업 비중이 GDP의 30~40%에 이를 만큼 낙후된 산업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코코아(세계 최대 생산국), 금, 목재 등 일부 1차 생산품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이들 품목의 국제시세와 작황에 따라 가나의 경제가 크게 좌우되는 취약성을 안고 있음.
 - 코코아 생산의 호조와 공공건설사업의 증가로 2004년의 경우 전년에 이어 5%선의 양호한 성장을 보임. 2005년에도 성장세 유지 전망.
- 현재 IMF와 세계은행 등은 가나를 아프리카 경제개혁의 모델케이스로 삼아 장기간에 걸친 지원과 더불어 구조조정정책을 시행함.
- 재정수지: IMF의 긴축정책 요구로 재정적자는 2000년에 8.5%를 기록한 이후 계속 축소되고 있으나, 2004년 12월 선거의 영향으로 적자폭이 4.6%로 전년에 비해 확대됨. 한편, 소극적인 민영화 추진으로 IMF와 갈등을 빚음.
- 국제 유가 상승과 세디(Cedi)화 평가절하에 따른 수입가 상승, 선거의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 2004년 12.7%에서 2005년에는 17.3%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와 취약한 경제구조로 당분간 세디화의 평가 절하 지속 전망, 경상수지 악화 시 환율 급등의 위험이 내재됨.
- 외채이자 지급 등으로 그간 경상수지가 적자 기조를 유지하였으나, 국제원조자금 유입과 해외근로자 송금 등으로 2003년 이전수지가 흑자를 기록함.

· 그 영향으로 2003년과 2004년에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 개선되는 추세를 보임.

- 외채의 대부분이 양허성 차관이고 HIPC 구제 프로그램의 완료시점(completion point) 도달에 따른 채무탕감 확정으로 외채관련 지표는 계속 개선될 전망이다.

<표 II-2> 가나의 주요 경제 지표

항목	단위	2000	2001	2002	2003	2004e
1인당GDP	달러	271	264	280	330	402
경제성장률	%	3.7	4.0	4.5	5.2	5.4
소비자물가상승률	%	25.2	32.9	14.8	26.7	12.7
환율(달러당, 연말)	C	7,047.65	7,321.94	8,438.82	8,852.32	9,054.26
경상수지	백만달러	-387	-325	-31	255	192
상품수지	"	-830	-1,101	-690	-648	-827
외환보유액	"	309	376	636	1,353	1,606
총외채잔액	"	6,625	6,735	7,340	7,957	7,400
총외채잔액/GNI	%	137.1	129.5	121.7	242.7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1) 일반 현황

- 외교관계 수립: 1977년 11월 14일 수교함(북한과는 1964년 12월 28일 수교)
- 주요 협정 체결: 문화협정(1987), 경제기술협력협정(1990), 무역협정(1990)
- 투자실적: (2004년 말 현재, 순투자 기준) 13건, 336만 7천 달러(제조업)

- 무역현황: 2004년 현재 수출은 약 7,500만 달러이며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섬유직물, 일반기계 등임. 수입은 전년에 비해 오히려 줄어 2004년 현재 약 700만 달러로 주로 농산물, 코코아 등이 수입됨.

<표 II-3> 대 가나 무역 현황

항목	2002	2003	2004	주요품목
수출(천 달러)	42,256	70,559	75,339	섬유직물, 일반기계
수입(천 달러)	10,053	10,779	6,991	농산물, 코코아

(2) 한국 건설업체 진출 현황

-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1965년 1월 1일부터 2006년 4월 18일 현재까지 가나에서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가나 진출 현황을 보면, 총 9개 업체가 진출하여 19건(하청 제외), 4억 4,973만 1천 달러를 수주한 것으로 집계됨.

<표 II-4> 한국 건설업체 진출 현황

업체 명	건수
대우 엔지니어링	1
대우건설	7
범진기공(하청)	2
서울통신기술	1
SK건설	6
한국농촌공사	2
한국해외기술	1
한준건설(하청)	1
현대건설	2
합계	23 (하청 및 파기공사 제외: 19건)

자료: 해외건설협회

제3장

아제르바이잔

1. 기본 사항

○ 국가 개요

-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Republic)은 코카서스 산맥 남쪽 카스피해 연안의 서쪽 해변가에 위치해 있으며, 국토의 대부분이 산(구릉)이며, 러시아,格鲁지아, 터키, 아르메니아, 이란과 경계를 이룸.
 - 국토면적은 8만 7천 km²로 한반도의 5분의 2 정도임.
- 기후는 대륙성으로 봄과 여름(4월 중순에서 10월)에는 20 ~ 30도, 12월 ~ 3월에는 훨씬 내려감.
- 전체 인구는 830만명으로 수도인 바쿠에 약 21.7%가 집중되어 있음.
- 언어는 기본적으로 아제르바이잔어를 사용하며, 고위층이나 50대 이상 고 연령자들은 러시아어도 구사함.

○ 정치 현황

- 정치적으로는 2003년 10월 대통령에 당선된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 집권 이후 신진 엘리트 세력인 바쿠계를 중심으로 구세력인 나히체반계를 점진적으로 축출하며 권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음.
- 1994년 이후 휴전상태인 나고르니 카라바흐 분쟁은 단기간 내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이전과 같은 대규모 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보임.

- 이 분쟁은 역사적으로 18세기 이후 오랫동안의 민족적·종교적 갈등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다가, 분쟁 당사자인 양국 정부가 이 문제를 국내정치용으로 이용하여 단기간 내에 해결될 가능성이 낮음.
- 최근 고유가로 인한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관료주의 및 부정부패의 만연되어 있고, 국민의 과반수가 극빈층에 속하는 등 극심한 빈부격차 등 고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교육, 보건, 전력 등 국민생활 여건이 열악함.
- 현 정부는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보건, 교육 등 공공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IMF 및 EBRD(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의 협력 하에 빈곤감축 및 성장 촉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표 III-1> 아제르바이잔의 일반 현황

일반	·위치: 카스피해 연안 카프카즈 ·면적: 87,000 km ² (한반도의 2/5) ·기후: 대륙성 ·인구: 830만명 (2005) ·수도: 바쿠(Baku, 180만명) ·민족: 아제르바이잔인(90%), 다게스탄인(3%), 러시아인(2.5%) ·언어: 아제르바이잔어(공용어), 러시아어 ·종교: 회교(시아파 75%, 수니파 25%), 러시아 정교
정치	·독립일: 1991. 8. 30 (구소연방)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 ·국가원수: 일함 알리에프(Illham Aliyev)대통령 ·국제기구가입: CIS, IMF, MIGA, World Bank 등
경제	·GDP: 125억 달러(2005) ·1인당 GDP: 1,024 (2004) ·화폐단위: Manat (AD) ·산업구조: 제조업 37.8%, 농업 13.1%, 건설업 12.1%, 운송업 10.6% (2003) ·주요 수출품: 원유 82%, 농산물 4.3%, 운송·물류 4% (2005) ·주요 수입품: 기계설비 30.6%, 철강 17.4%, 농산물 11.8% (2005) ·주요부존자원: 석유, 천연가스, 철, 구리, 중광석, 금 ·경제적 강점: EU 및 세계은행 등의 지원,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개혁 정책 ·경제적 약점: 아르메니아와의 지역분쟁 소지 상존

2. 경제 현황

(1) 국내 경제 동향

- 2005년을 기준으로 GDP는 125억 달러를 기록함.
 - 2003년 73억 달러, 2004년 85억 달러에서 2005년에는 원유가 상승으로 GDP가 급격히 증가함.
 - GDP중 원유 가스 관련 산업이 31%를 차지함.
- 국제 고유가 기조 속에 신규 석유·가스 생산이 증가하여 최근 GDP성장률 역시 급격히 상승하여 2003년 11.2%, 2004년 10.2%에서 2005년에는 26.4%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06년도에도 20% 성장 예상.
 - 비석유 부문의 투자 부진으로 인해 성장이 정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의 고유가와 석유생산의 증가 및 석유 가스부문의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증가로 높은 성장률 기록
- 향후 수년 내에 경제규모는 3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정부는 내년도부터 연 200억 달러 이상의 석유판매 수입으로 인한 재정 지출방안 모색 중에 있음.
 - 정부는 석유수출 대금으로 도로, 통신, 발전소 등 국내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원유, 가스에만 의존하던 산업구조에서 탈피하여 제조업, 건설업 및 IT분야 등으로 산업구조의 다변화를 적극 추진 중.
 - 아제르바이잔의 석유 매장량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약 70억 배럴로 이는 세계 매장량의 0.6% 수준임.
- 고유가로 인한 세수확대로 2005년 GDP 대비 1.5%의 재정흑자 전망
 - 2004년 고유가로 인해 석유 가스 부문의 세수가 대폭 증가하며 GDP 대비 약 1%의 재정흑자를 보임.
 - 2005년에는 총선거로 인한 공무원 임금 인상, 교육 및 보건부문에 대한 재정 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인한 재정수입 증가로 GDP 대비 1.5%의 재정흑자 기록 전망

-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2005년 물가상승률은 12%에 달할 것으로 전망
- 2003년까지 중앙은행의 긴축정책에 따라 물가가 안정되었으나, 지난해 석유가스 부문으로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과 석유수출 확대에 따라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되어 물가상승률이 6.7%에 이릅니다.
-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중앙은행의 긴축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2005년 중 물가상승률은 전년보다 높은 12%에 달할 전망.

<표 III-2> 아제르바이잔의 주요 국내 경제 지표

항목	단위	2001	2002	2003	2004	2005e	2006f
1인당 GDP	달러	701	742	865	1,024	-	-
경제성장률	%	9.9	10.6	11.2	10.2	26.4	-
재정수지/GDP	%		-0.5	-1.2	0.8	1.5	1.6
소비자물가상승률	%	1.6	2.8	2.1	6.7	12.0	8.5

자료: EIU

(2) 대외 거래 동향

- 고유가와 석유수출 증가에 힘입어 2005년 소폭의 상품수지 흑자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 감소 전망
- 2003년과 2004년에는 석유가스 개발 관련 설비 수입 확대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식품수입 증가 등으로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석유수출의 대폭적인 증가에 힘입어 상품수지는 소폭 흑자로 반전함.
- 2005년은 석유가스 부문 설비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 및 수출 증가로 상품수지 흑자폭도 확대될 전망
- 외채의 경우 GDP대비 외채비중이 낮아 양호한 외채구조와 상환능력을 보유함.
-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신중한 외채정책 및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지속적인 유입 등에 힘입어 2004년 총외채액은 GDP 대비 23% 수준인 19억 달러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함.
- 고유가와 석유수출 증가에 따른 상품수지 확대에 힘입어 외환보유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외채상환 의지도 양호하여 외채상환 능력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

<표 III-3> 아제르바이잔의 대외거래 지표

항목	단위	2002	2003	2004	2005e	2006f
환률(달러당, 평균)	AD	4,861	4,911	4,913	4,811	4,637
경상수지	백만 달러	-768	-2,021	-2,590	-1,500	3400
상품수지	"	482	-98	161	1,448	6,637
수출	"	2,305	2,625	3,743	6,104	11,433
수입	"	1,823	2,723	3,582	4,656	4,796
외환보유액	"	722	821	1,091	-	-
총외채잔액	"	1,500	1,700	1,900	2,100	2,300
총외채잔액/GDP	%	23.7	23.1	22.6	18.3	14.0
D.S.R.	%	6.3	7.9	6.7	4.9	3.0

자료: EIU

3. 건설 및 부동산 시장 동향

(1) 시장 동향

- 경제의 급성장에 따라 최근 건설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 건설부문의 투자추이를 보면, 2001년 5.9억 마나트에서 2002년에는 11억 마나트(86% 증가), 2003년 19억 마나트(72% 증가), 2004년 24억 마나트(26% 증가)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 건설시장은 석유자원개발과 가스·석유 파이프라인 공사가 주도하고 있으며, 수도 바쿠를 중심으로 상업용 건축과 주택개발도 활성화됨.
- 주요 개발사업은 도로, 에너지를 중심으로 전개
 - 도로 총 연장 1만 8,723km 중 당장 정비가 필요한 1,240km를 국제수준으로 개선하는데 약 1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향후 5년간 고속도로 및 주변국 연결도로 건설에 8억 1,300만 달러 추가될 것으로 예정됨(ADB, EBRD 차관 등).

- 2005~15년 종합에너지개발계획에 따라 발전, 천연가스, 석유 증산 추진
 - 천연가스 및 석유는 각각 200억m³와 5,000만톤으로 확대
 - 정유 플랜트 현대화에 6 ~ 7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정.
- 도로 시설 취약
 - 도로의 총 연장은 1만 8,723km, 4차선 고속도로는 191km에 불과함.
 - 도로포장율은 50%를 넘고 있으나 대부분 1970년대 건설되었으나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3/4가 불량한 상태임.
 - 도로건설은 주로 국제금융기관 차관, 일본, 쿠웨이트 등의 ODA에 의존함.
- 전력시설은 발전설비 총 용량이 5.2 GW로 1991년 독립이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력난이 심화됨. 전력정상화를 위해 25억불 소요
 - 현재 러시아, 터키, 이란 및 그루지아에서 전력 수입
 - 2015년까지 발전설비를 7,000 MW로 증설 계획
- 상하수도 분야에 있어서는 향후 수질개선사업에 약 30억 달러 및 수도공급시스템 개선에 10억 달러 소요 예상

(2) 현재 입찰 제안을 제출하였거나 입찰예정인 프로젝트³⁾

- 북측 : ① 바쿠- 러시아 국경간 고속도로 개보수
 - 전체 구간 중 일부(61KM)만 PQ발주(실시설계 완료)
 - 유럽 재원 85% + 정부재원 15%
 - 삼환 등 19개사 선정
 - 입찰구간 외 구간은 체코재원으로 체코업체만 참여 가능
- 남측 : ② Alat - Astarat(이란국경) 고속도로
 - 삼부토건(천일기술단)에서 제안 : 195 KM / 2.5억불

3) 이는 한-아제르바이잔 대표단 순방 시 파악된 프로젝트로 현재 우리나라 업체들을 비롯한 외국업체들이 입찰을 준비 중이거나 입찰제안을 제출한 프로젝트들임.

- ②-1. Alat - Masally(136KM)
 - W.B. 재원
 - 용역업체 선정중
- ②-2. Masally - Astara(56KM)
 - ADB재원으로 금년 중 입찰 예정
- 동서1 : ③ Gazi Mammad - Georgia 국경 : 380KM / 3억불
 - ③-1. 380KM중 100KM :
 - Paribas 은행 금융(1억불)으로 시공 중
 - ③-2. Yevlax - Ganja : 90KM
 - 기존 2차선 보수공사 : ADB 자금
 - 신설 2차선 건설공사 : 한국업체(범진+우리은행) 추진중
 - * EPC(Fast Track 방식)및 금융주선(우리은행)
 - * 설계는 안 돼 있으며, 약 1억불 추정
 - * 아제르정부와 우리은행간 최종 Loan조건 협상(2006.6.26-29)
- 동서2 : ④ Baku - Sharmakhy - Georgia 국경 : 310KM / 4억불
 - ④-1. Baku - Sharmakhy 자동차 도로 : 120 KM / 1.5억불
 - W.B. 자금
 - 실시설계 완료(독일) 104 KM
 - 2개월 내 공고 예정
 - ④-2. Sharmakhy - Sheki - Georgia 국경 : 190 KM / 2.5억불
 - 구상단계(타당성조사 안됨)
 - 외국의 은행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있는 중
- 남측2 : ⑤ Yevlax - Beilagan간 고속도로(150KM)
 - 현재 WB 1개 은행에서만 제안받은 상태로
 - 한국업체의 Financing & Constructon 가능(범진에서 제의)

- Baku : ⑥ Baku 시내 개선및 우회도로
 - ⑥-1. Baku 시내 교량 건설공사 (70 Mil U\$)
 - 평화 엔지니어링 설계 : 사장교 1 KM
 - Azer 정부자금 → 금액 절감 요구
 - ⑥-2. Baku 시내 교차로 개선사업 (45 Mil U\$)
 - 9건중 7건 공사중
 - 2건 교차로 개선사업(평화엔지니어링 설계) : 45 Mil U\$
 - ⑥-3. Baku 우회도로 1 : 21 KM / 50 Mil U\$
 - Kuwait Fund 26 Mil U\$ + 아제르 정부자금 24 Mil U\$
 - 기 입찰 : 가격 Nego 중 결렬 → 재 입찰 예정
 - ⑥-4. Baku 우회도로 2 : 37 KM / 1 ~ 1.5 억불
 - 이란업체가 F/S및 Concept Design 완료
 - 한국/아제르간 상징적 협력사업으로 추진 제의
 - * EPC(Fast Track 방식)및 금융주선(EDCF+ 민간자금)
 - * 평화엔지니어링에서 설계 추진

(3) 외국 건설업체 진출 현황

- 석유, 가스 관련 인프라 개발에는 서방 선진국 업체들이 많이 진출해 있으며, 일 반토목 분야는 터키, 러시아 업체들의 활동이 활발
 - 주요 서방업체로는 영국, 프랑스, 핀란드, 스웨덴 등
- 아제리 건설업체들은 외국 업체의 하도급 정도만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형 토목 공사의 단독수행은 어려운 실정임.

4. 우리나라와의 관계

(1) 일반 현황

- 외교관계 수립: 1992년 2월 23일 수교(북한과는 1992년 1월 30일 수교)
- 공관현황 : 2006년 3월 대사 부임.
- 주요 협정 체결: 없음.
- 투자실적 : 양국간 교역은 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 2004년 양국간 교역규모는 약 2,000만 달러로 미미한 편이나 증가세를 보임.
 - 2005년 1~8월 중 자동차 부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

<표 III-4> 대 아제르바이잔 수출입 추이

항목	2002	2003	2004	2005.1~8	주요품목
수출(천 달러)	3,784	10,968	19,127	20,399	자동차 부품, 플라스틱, 섬유제품 등
수입(천 달러)	91	1	649	83	어류 등

자료: KOTIS

(2) 한국 건설업체 진출 현황

- 지금까지 2건, 160만 달러의 수주 실적 기록(현재 시공 중인 공사는 없음)
 - 1994년 현대건설이 아제르바이잔 수력발전 댐 기술용역 자문(21만 달러)
 - 2003년 건원건축 및 건원ENG가 바쿠 주택건설 설계(140만 달러, 타절)

(3) 아제르바이잔 진출 시 고려사항

- 긍정적 측면

-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인프라 및 주택 등 건설 물량 풍부
 ; 아제르바이잔에 파견된 국정원 참사관에 의하면 「바쿠는 현재 건설 중」이라고 할 만큼 많은 건설공사가 추진 중임.
- 풍부한 석유자원으로 인한 자체 자원 확보 가능, 국제 금융기관 및 외국계 은행 및 기업의 지속적 투자
- 양국 정부간의 협력관계 추진

- 부정적 측면

- 의사소통의 제약 : 30대 이상은 러시아어와 아제리어 사용, 30대 미만은 아제리어만 사용, 영어교육 취약
- 철근, 모래, 자갈 등 주요 자재 원활 수급 의문시됨(대규모 토목공사시 필요자재의 현재 조달 무리 예상)
- 건설 장비 노후화로 본국 조달 및 인접국 대여 사용 불가피 → 원가상승 초래
- 건설 관련 제도 및 공사 관련 규정 미비
 ; 구 소련시절 건설관련 규정 및 specification의 폐기 및 와해되고 새로운 규정 준비 중으로 공사 시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한 마찰 가능성 상존
- 공무원 업무 처리의 비효율성 및 부정부패 만연
 ; 본 대표단 아제르바이잔 입국 시 급행료 지급에도 불구하고 비자 발급 지연
 ; 알리에프 대통령 부패 근절 천명